

# 아무도 몰랐던 **물레발**명이야기 (콘택트 렌즈) 글: 김민재

사람의 두뇌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. 모호하면 심플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도록 해서 공학이 상해해서라 명명들이다 말 하자겠음지!



하지만 이 '안경'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은 할 수 없지 않다.

① 비오는 날엔 비글레에 안경나. (우울이 없지!)



② 눈의가 죽은 날에나 과학은 적용해 김사실은 너무 불완전하다.



③ 안경은 사람의 얼굴을 문화에 변형시키 준다.



오늘날 시력이 좋지 않게 되면 위해 등장한 '안경'은 이제 과학으로 뒤떨어진 상품대지가 아니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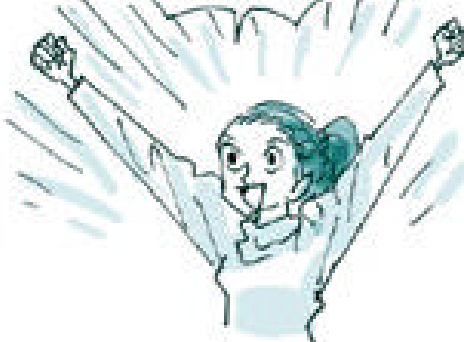


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끼고 선택하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'문화의 렌즈'이다

(안경이 여러 안경을 착용한 것이 문화의 렌즈의 개념이지만, 문화의 렌즈는 안경도 많다!)



과~ 안경의 문화가 있어!



수정체만을 살펴보는 콘택트렌즈는  
흔다면 하스렌즈였다. 팔과목을 딱딱한  
렌즈였는데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수  
없었다.



이 소프트렌즈가 갖추면 눈에 부드럽게  
달라붙어 눈을 편하게 해주며 렌즈의 착용을  
잘 느끼지 못하게 해주며 떨어뜨려도 깨지거나  
하릴 않는다. 안의 끈어질수는 있다.



현재는 각막렌즈가 대세이다. 아무래도  
때문에 민감한 세대이다보니.



이러하여 등장한것이 바로 1964년에  
제국의 한 과학자에 의해 개발된  
'소프트렌즈'!!



이제 한술 더떠 1971년에는  
산소를 투과시키는 렌즈도 등장했다.  
그뿐입니다.



말으론 이식렌즈가 또 등장하게  
될까? 사람의 눈의 인공은 점점  
나빠지지만 그에 더 나은 의학기술은  
날을 날려가고 있다.

